

세종문화회 약력

(미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2017 년도에 보낸 자료)

세종문화회는 2004 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어 현재 본부를 미국 시카고에 두고있으며 지난 13 년동안 한국의 문화와 문학을 미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주 대상으로 소개 시키며, 나아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미국 주류 문화의 한 구성요소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는 루시 박 (박종희, 의대 69 입) 동문이 제안하여 2004 년 시카고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이사회 (당시 회장:전현일, 농대 62 입) 에서 만장일치로 조직의 설립을 결정하고,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가 세종문화회의 설립과 운영을 후원하되, 일반인의 참여와 후원을 받기 위해,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설립할것을 결정하여서 시카고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산모가 되어 탄생하였습니다. 정호 동문 (공대 62 입)이 주관한 세종문화회 창립 후원 음악회에서 모금한 \$2,500 과 시카고 동창회에서 후원한 \$2,500 등, 총 \$5,000 을 seed money 로 하여, 제 1 회 회장으로 전현일 (농대 62 입) 동문, 사무총장으로 루시 박 (박종희, 의대 69 입) 동문, 임이섭 동문 (미대 54 입), 강영국동문 (수의 67 입), 김병윤동문 (문리 65 입), 황치룡동문 (문리 65 입), 김호범동문 (상대 69 입) 등 관심있는 동문들이 이사진으로 들어와 2004 년에 IRS 로 부터 501(c)3 비영리 단체로 승인을 받고, 제 1 회 세종음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조직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동문외에도 오유심 현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비 동문들이 임원과 이사진으로 조직에 참여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매년 한국의 음률이나 장단이 들어간 현대곡을 지정곡으로 연주하게 하는 **세종음악경연대회 (Sejong Music Competition)**와 한국의 테마가 들어간 한국작가의 영어로 번역된 문학작품들을 읽게하여 수필을 쓰게 하고 또 영어로 시조를 쓰게하는 **세종작문경연대회 (수필부문/시조부문) (Sejong Writing Competition – Essay category and Sijo category)**와, 한국적인 테마가 포함된 현대곡을 작곡하게 하는 **세종국제작곡경연대회 (Sejong Prize, Sejong International Composition Competition)**를 실시하고, 또 미국교사들이 학교 정규 수업에 시조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여, 교사들을 상대로 **시조교육** 세미나, 워크숍등을

개최하고, 일반인들을 위해 시조낭송회를 개최하고, 또 **시조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조 교육자료들을 영어로 제작**하여 교사들에게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 년) 12 월에 개최한 제 13 회 세종음악경연대회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두 부문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division 으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약 90 여명의 학생들이 주로 미 중서부에서 오고, 멀리서는 LA 에서 부터 참가하여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캠퍼스에서 경연대회를 갖고, 수상자들을 2017 년 1 월 Chicago Cultural Center 의 Claudia Cassidy Theater 에서 수상자 연주회를 가져, 일반인들에게 한국의 음률이 들어간 피아노 곡, 바이올린곡들을 선 보여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25 세 이하의 어른과 초중고등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종작문경연대회는 수필 부분과 시조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모든 진행을 on line 을 실시하여, 작품 제출 부터 시상까지 세종문화회 웹사이트 포털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7 년) 3 월에 마감한 제 12 회 세종작문경연대회에는 미국의 33 개 주에서 1,100 여명이 참가하여 작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조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시조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세종문화회는 시조를 처음 접해보는 학교교사들도 시조수업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영상들을 포함, 교사들을 위한 시조교육 자료들을 제작하고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올려 놓고 있으며, 또 관심있는 교사들을 위해 시조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여 하버드대학의 데이빗 맥켄 교수, 브리감영 대학의 마크 피터슨 교수와 같이 미국에서 시조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